

## 간몬 기선

동쪽의 혼슈와 서쪽의 규슈를 가르는 간몬 해협은 좁고 파도가 거세 수 세기 동안 교역, 왕래, 통신에 불편한 장애물이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시모노세키(야마구치현)와 모지(후쿠오카현)가 번영하며 발전하기 시작하자 두 도시 사이를 확실하게 왕래할 방법이 필요해졌는데, 다리와 해저 터널은 기술적으로 아직 불가능했습니다. 1889년 9월, 지역 사업가이자 후에 중의원 의원이 된 이시다 헤이키치(1853~1929)가 해협을 건너는 최초의 페리 항로를 개설했습니다. 1896년, 도이 주키치(1853~1936)가 간몬 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해협을 왕래하는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 페리 사업

간몬 기선은 창업 이후 1세기가 넘는 현재도 시모노세키의 가라토 부두와 모지의 마린게이트를 연결하는 간몬 연락선, 역사적인 섬인 간류지마 섬(후나시마 섬)의 연락선 등과 같은 정기 여객 페리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가라토와 모지 항구를 연결하는 페리의 소요 시간은 약 5분 정도입니다. 페리는 양 항구에서 출발하며, 오전 6시(토, 일, 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대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시모노세키와 간류지마 섬을 연결하는 페리의 운항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대까지 4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지 항구와 간류지마 섬 사이는 운항 시간은 비슷하지만, 주말만 운항합니다.

이 페리의 선장들은 항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배를 피하면서 간몬 해협의 거센 조류를 능숙하게 항행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페리의 야외 갑판 위에서 해협의 전망과 양쪽으로 보이는 항구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